



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, 예비 CRA를 위한 ‘제 6회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’ 개최

-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함께 8월 23, 24일 양일간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진행
- 현업에서 신약 개발 및 임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직접 참석해 생생한 지식 및 정보 공유

2012년 6월 11일 - 국내에서의 다국가 임상 시험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제약 업계에서 임상 연구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(대표 장 마리 아르노)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함께 예비 CRA를 위한 ‘제6회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’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2007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아 국내의 대표적인 CRA(임상시험 담당자, Clinical Research Associate) 양성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 과정은 간호대학, 약학대학, 보건의료대학, 수의학, 의과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40여 명을 매년 선발·교육하여, 현재까지 2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.

올해에는 국내의 임상 연구 현황 및 관련 법규는 물론 제약 회사에서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R&D, CSU (임상연구부, Clinical Study Unit), 의학부 등 유관 부서의 주요 역할 및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게 소개될 예정이며,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의 관련 강연 및 센터 견학도 진행될 예정이다. 또한 ‘현직 선배와의 대화’ 세션을 통해 본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에서 CRA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미 과장을 포함한 현직 선배와의 토론 및 상담 시간도 제공된다.

본 교육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 CSU 박영주 상무는 “최근 한국이 글로벌 제약 기업이 주목하는 주요 임상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어, 그 어느 때보다 임상 연구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”며, “본 교육 과정이 예비 CRA들에게 단순히 CRA 업무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제약 산업에서의 임상 시험 관련 업무 및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밀도 높게 체험하고 현업에 있는 선배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‘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교육과정’은 CRA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는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 웹사이트(www.sanofi.co.kr)에 공지되어 있는 교육과정 참가 신청 항목(이름, 소속 학교, 연락처, 참가 동기 등)을 기재해 6월 29일까지 이메일(minju.lee@sanofi.com)로 제출하면 된다. 이틀간 진행되는 본 교육 과정 참가비는 무료이다.



사노피(Sanofi) 에 대하여

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(Sanofi)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,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, 파리 (EURONEXT: SAN) 및 뉴욕 (NYSE: SNY)에 상장되어 있다. 국내에서는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(세노비스)을 공급하고 있으며, 이 외에도 백신(사노피 파스퇴르), 희귀질환치료제 (젠자임 코리아), 동물약품 (메리알 코리아)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,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, 사람에서 동물까지,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다각화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.